

미주지역, FMC 4/4분기 매출증가 기여

남미 및 북미에서의 매출 증가가 2008년 FMC 4/4분기 매출을 1.9%증가한 2억4천80만달러를 기록하게 만들었다. 남미의 매출의 대부분은 브라질에서 신규품목 출시와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증가

되었고 북미사업에서도 신제품 출시, 캘리포니아 쌀 시장과 3/4분기에서 이월된 매출 등으로 증가되었다고 회사는 밝히고 있다..

4/4분기 세전이익은 5.3% 증가한 3천3백60만달러였다. 비록 원자재 가격 및 유통비용 상승으로 상쇄되었지만 미주지역에서의 혼합제 호조와 높아진 매출로 증가된 것이다. 제조비용이 2007년 동기보다 높아져 1천5백만 달러에 이르렀다. 지난해 바이엘의 서 버지니아에 있는 공장의 화재에 의해 발생된 4백만달러 일회성 비용손실도 포함되었다. 공장폐쇄에 따라서 공장비용 또한 높아졌다.

4/4분기 매출은 당해 9개월 매출의 약 24% 정도였다. 대체적으로 FMC 2008 농약매출은 19% 증가한 10억5천8백70만달러 정도로 예상된다.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높아졌다. 호조세의 세계 농약시장과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및 신규품목 출시가 매출을 높아지게 하였고 FMC는 분석하고 있다.

FMC 농약매출		(단위 : 백만\$)	
연간(12월말 기준)	2007	증감(%)	2008
매출	889.7	19.0	1,058.7
영업이익	207.0	18.5	245.2
4/4분기			
매출	229.5	4.9	240.8
영업이익	31.9	5.3	33.6

2008년 세전이익은 18.5% 증가한 2억4천5백20만달러였다. 판매증가와 지속적인 유통개선으로 원가비용 상승을 억제시켰다.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미국 농약생산 공장 폐쇄로 3천1백50만 달러와 플로리다 잭슨빌의 완제품 공장 폐쇄로 5백60만달러 부담을 안게 되었다. 3백20만달

리 구조조정 분할 부담금과 2백20만달러 자산위부(委付)금이 표시되어 있다.

FMC는 2009년 1월 농약매출은 5-10%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부분적으로 지출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판매증가와 세계 유통구조 개선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. 연간 총매출은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통화 영향을 받겠지만, 대부분 지역에서 판매 및 가격 상승 영향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연간 수익이 5-10%증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
독 일

-시험부-

중국, 농약무역량 감소

농약연구소에서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국제 농약무역이 수량측면이나 가격측면에서 2007년 12월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.

지난해 12월 중국은 2007년 12월에 대비하여 34% 감소한 64,300톤을 수출하였다. 금액으로는 29.6% 감소한 3억3백만달러였다. 수량으로는 55.9% 감소한 3,500톤이, 금액으로는 24.9% 낮아진 16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. 농약원제 무역은 매년 감소하였지만 완제품 수입은 금액으로 16.5% 증가한 14백만달러로 증가되었다.

중국

2008 중국 농약 무역량

수입/수출	금액 (백만\$)	동기대비 (%)	수량 (톤)	동기대비 (%)
총 수입·수출				
수출	303	-29.6	64,300	-34.0
수입	16	-24.9	3,500	-55.9
원제 수입·수출				
수출	229	-21.6	41,000	-24.3
수입	2	-78.9	600	-90.3
제품 수입·수출				
수출	74	-46.5	23,300	-46.2
수입	14	+16.5	2,900	+65.5

브라질, 농약매출 24% 증가

2008년 브라질 농약매출이 127억6백만레알(56억3천3백만달러, 현재 환율기준)로 24% 증가하였다고 브라질 농약산업무역협회인 Sindag가 전하였다. Sindag에서는 달러기준으로 매출이 29% 증가한 69억4천3백만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. 이는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지난해 레알은 달러에 대하여 강세를 보였다.

제초제가 매출성장을 이끌었으며 콩과작물과 같은 주요작물에서 판매가 늘었다고 Sindag의 홍보부장인 Ivan Sampaio는 전하

고 있다. 제초제가 32% 증가한 57억레알로 시장의 거의 절반(45%) 차지하고 있다. 두류, 옥수수, 곡류, 벼, 감귤류 및 목초지 제초제가 강세를 나타냈다.

살충제 매출은 약 25%까지 올라갔으나, 살균제는 브라질 통화기준 16% 증가에 그쳤다. 2종류 모두 대두, 옥수수 및 곡류에서 증가되었다. 또한 살충제는 감귤류, 면화 및 벼에서, 살균제는 커피 및 감자에서 사용되는 약제가 많이 판매되었다. 살충제는 매출의 28%, 살균제는 22%를 차지하고 있다.

미국

DuPont, 매출성장 도모

DuPont은 향후 3년 동안 농업 및 식품사업의 매출 및 이익 확대를 꾀하고 있다. 2007년~2010년의 매출 연평균복합성장률(CAGR)은 6-8%, 이익 연평균복합성장률은 2013년까지 15%로 확대 하였다. 그룹의 농업부문 부사장인 Jim Borel은 공급, 제품, 인력 및 독특한 유통체계가 앞으로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 보다 새로운 해가 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.

농업 및 식품사업의 2008년 매출은 세전 이익 21%, 세후이익 24% 증가에 힘입어 16% 증가하였다. 작물보호 매출은 10% 이상 증가한 26억달러로 나타났다. 제초제가 총 매출의 54%를 차지하였고 살균제는 23%, 살충제는 19%를 점유하였다. 가격과 고부가가치 상품 전략으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Borel씨는 밝히고 있다.

DuPont의 새로운 anthranilic diamide 살충제인 Rynaxypyr(Chlorantraniliprole)이 2008년에

5천만 달러 매출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는 3배 높아진 1억5천만달러, 2011년까지 3억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. 이 살충제는 2009년 1월말 현재로 24개 국가에서 등록되었다. 금년 말까지 시장의 90%이상 국가에서 등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DuPont의 작물보호 매출 중 20% 정도는 과거 5년 동안 출시된 약제로 구성되어 있다. 또 하나의 중요 제품이 될 두번째 anthranilic diamide 살충제인 Cyazypyr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.

또한 흡입해충의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살충제가 연구·개발되어 최적단계에 와 있다. 그리고 같은 단계에 있는 곡류 광역 살균제도 준비하고 있다. 역병원균을 방제하고 특수 작물에 대한 광역 살균제가 개발단계에 있다.

그리고 DuPont의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 및 두류에 사용하는 제초제 출시가 임박하고 있다.

브라질

살비제는 약간 증가하였고 기타 약제들은 1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Sindag는 지난 1월에 브라질 농무성에 농약시장 통계를 제출하였다. Sindag에서는 목초지 제초제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. 새로운 회사 진입과 신제품이 출시되어 기술적인 향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Sampaio씨는 전하였다.

브라질 농약매출

(단위 : 레알)

종류	2007(\$)	증감(%)	2008(\$)
제초제	4,380(1,942)	31.6	5,764(2,555)
살충제	2,934(1,301)	23.0	3,608(1,599)
살균제	2,387(1,058)	16.4	2,779(1,232)
살비제	177(78)	5.1	186(82)
기타	335(149)	9.9	368(163)
계	10,213(4,527)	24.4	12,706(5,633)